第20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7.3.12.~3.1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0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Ⅰ. 개회식 ····· 225

Ⅱ.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27

Ⅲ.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33

Ⅳ. 부 록

1. 의사일정안 ····· 239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41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51
4. 조례심사보고서 ····· 261
5.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 277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3월 12일 (월요일) 11시 10분

開會式順(第202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10분 개식) (11시 11분 폐식)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3월 12일 (월요일) 11시 11분

議事日程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0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0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11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된

하재성 장학관입니다.

청주교육청 중등교육과장으로 재직하다 교육정보화 과장으로 발령된 최태호 장학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경과보고

● 의장 성영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 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2007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으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제20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15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3월 13일과 3월 14일 2일간은 2007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

고자 하며, 3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성영용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헌혈 참여 시 공가를 인정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줄 수 있

도록 신설하였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공포로 학교주소 및 명칭변경과 학교이전, 지번 변경에 따른 학교 주소 변경을 위하여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변경에 따라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충주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금능초등학교를 충주금릉초등학교로 명칭과 주소를 행정동명과 각각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병설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학교 주소를 청원군 오창면에서 청원군 오창읍으로 주소를 변경하며,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 산업단지로의 학교 이전에 따른 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만수초등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 괴산군 및 증평군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병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의 학교 주소를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1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두 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서수웅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별첨 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3월 15일 (목요일) 11시 03분

議事日程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서수웅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서수웅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서수웅 교육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는 바,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 중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17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안 제21조 제10호를 신설하여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제2항 및 제10항에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였고,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하여 민간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2에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확산시키고자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와 청원군의 관련 조례 제·개정, 학교이전 및 지번 변경에 따라 해당 학교의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1일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금능동의 법정동 명칭이 금릉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금능초등학교의 학교 명칭은 경북 김천과 경기도 파주에 동일명의 금릉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어 이들 학교와 구분하고자 지역명을 삽입하여 각각 충주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충주금릉초등학교로, 주소지는 금능동에서 금릉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원군 오창면 오창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2006년 12월 28일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오창읍 관할 구역에 있는 오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3개원, 오창초등학교 외 4개교의 주소를 오창면에서 오창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만수초등학교를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 구역 내에 신축하여 2006년 9월 28일 이전함에 따라 이들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괴산군 및 증평군의 경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증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2개원, 증평초등학교 외 2개교, 증평중학교 외 1개교 등 일부 학교에 대하여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학교이전 및 지번 변경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한 명칭 및 주소를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금번에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증평군 지역의 학교 중 고등학교 지번이 변경된 학교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별표1의 증평공업고등학교 위치란 중 620번지를 713번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성영용

서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7. 3.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서 수 웅

위 원 이 상 일 李相一

의사국장 박 경 석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7. 3. 12. ~ 3. 15.(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3월 12일(월) 11:00	□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7. 3. 12. ~ 3. 15. (4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산 회** □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제안설명
3월 13일(화) 10:00 14:30	□ **2007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 충주, 제천,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본회의 휴 회
3월 14일(수)	□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3월 15일(목) 11: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 회** □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202-1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3월 일 (제 202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3월 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1

제출연월일 : 2007. 3.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신설)

나.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안 제17조제2항)

(1)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2)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다. 헌혈 참여 시 공가 인정(안 제21조제10호 신설)

(1)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개선(안 제22조제2항 및 제10항)

(1)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함

마.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안 별표2)

(1)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 휴가를 얻도록 함

(2)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육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1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⑩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5조의2·제17조제3항·제20조제1항·제21조중 "다음 각 호의 1"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별표 2의 출산란 다음에 입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입 양	본 인	14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안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근무시간)①~③(생 략)	제12조(근무시간 등)①~③(현행과 같음)
<신 설>	④교육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연가일수)①(생 략)	제17조(연가일수)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신 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신 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신 설>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21조(공가)1.~4(생 략)	제21조(공가)1.~4(현행과 같음)
5. 원격지간의 전보명령을 받고 부임할 때	5. <삭 제>

현 행	개 정 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 하는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2조(특별휴가)①(생 략)	제22조(특별휴가)①(현행과 같음)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 ⑨(생 략)	③ ~ ⑨(현행과 같음)
<신 설>	⑩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td><td>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 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td></tr>
<tr><td>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td><td>제27조(준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td></tr>
<tr><td>(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tr><th>구 분</th><th>대 상</th><th>일 수</th></tr><tr><td><신 설></td><td></td><td></td></tr></table></td><td>(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table><tr><th>구 분</th><th>대 상</th><th>일 수</th></tr><tr><td>입 양</td><td>본 인</td><td>14</td></tr></table></td></tr>
<tr><td>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td><td>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안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td></tr>
</table>

관계법령 발췌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 (특별훈련대상자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특별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필요한 학력·경력등을 갖춘 자
4. 훈련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5.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첨 3)

의안번호	제 202-2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3월 일 (제 202 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3 월 2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제출연월일 : 2007. 3.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공포로 학교 주소 및 명칭 변경과 학교이전, 지번 변경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공포로 행정동명과 학교명을 일치하기 위한 학교 명칭 및 주소 변경

(1) 병설유치원

구 분	유 치 원 명	위 치
변경전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변경후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2) 초등학교

구 분	학 교 명	위 치
변경전	금능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변경후	충주금릉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나.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른 주소 변경

(1) 병설유치원

유치원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오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38번지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각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원군 오창면 각리646-2번지	청원군 오창읍 각리646-2번지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2) 초등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오창초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38번지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29번지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각리초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각리112-1번지	청원군 오창읍 각리646-2번지
비봉초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3) 중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오창중학교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청원군 오창읍 창리 151-4번지
각리중학교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7-4번지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7-4번지

(4) 고등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오창고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7-3번지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7-3번지
청원고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76-3번지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76-3번지

다. 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1) 병설유치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163번지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64B/L

(2) 초등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만수초등학교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163번지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64B/L

라. 지번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1) 유치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증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480번지
삼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19번지
보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16-1번지

(2) 초등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증평초등학교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480번지
삼보초등학교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19번지
보광초등학교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16-1번지

(3) 중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증평중학교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00번지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726번지
감물중학교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산 85번지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112번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오창고등학교 및 청원고등학교 위치란중 "오창면"을 각각 "오창읍"으로 한다.

별표 3의 오창중학교 및 각리중학교 위치란중 "오창면"을 각각 "오창읍"으로 하고, 증평중학교 위치란중 "600번지"를 "726번지"로, 감물중학교 위치란중 "산 85번지"를 "112번지"로 한다.

별표 4의 금능초등학교 명칭란중 "금능초등학교"를 "충주금릉초등학교"로 하고, 금능초등학교의 위치란중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하며, 오창초등학교·오창초등학교가좌분교장·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 및 비봉초등학교 위치란중 "오창면"을 각각 "오창읍"으로 하고, 각리초등학교 위치란중 "오창면 각리 112-1"을 "오창읍 각리646-2"로 하며, 만수초등학교 위치란중 "만수리 163"을 "오송생명과학단지 64B/L"로 하고, 증평초등학교 위치란중 "1056번지"를 "480번지"로, 삼보초등학교 위치란중 "1105-2번지"를 "11-19번지"로, 보광초등학교 위치란중 "576-1번지"를 "516-1번지"로 한다.

별표 6의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명칭란중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충주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하고,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금능동"을 "금릉동"으로 하며, 오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오창초등학교유리분교장병설유치원·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각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오창면"을 각각 "오창읍"으로 하고, 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만수리 163번지"를 "오송생명과학단지 64B/L"로 하며, 증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1056번지"를 "480번지"로, 삼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1105-2번지"를 "11-19번지"로, 보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중 "576-1번지"를 "516-1번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고등학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오창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7-3번지	.....	.....오창읍.....
청원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76-3번지	.....	.....오창읍.....

[별표 3]

중학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오창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	.....오창읍.....
각리중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7-4번지	.....	.....오창읍.....
증평중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00번지	.....	.....726번지
감물중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산 85 번지	.....	.....112번지

[별표 4]

초등학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금능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충주금릉초등학교	..... 금릉동 .....
오창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	.....오창읍.....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	.....오창읍.....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	.....오창읍.....
각리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112-1번지	.....	.....오창읍.....646-2번지
비봉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	.....오창읍.....
만수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163번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64B/L
증평초등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	.....480번지
삼보초등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	.....11-19번지
보광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	.....516-1번지

[별표 6]

유치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금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금릉동 .....
오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	.....오창읍.....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	.....오창읍.....
각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6-2	.....	.....오창읍.....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	.....오창읍.....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163번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64B/L.
증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	.....480번지.
삼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	.....11-19번지
보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	.....516-1번지

(별첨 4)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3.15. 11:00)

조례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3월 12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3월 12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3월 1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신설)

○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안 제17조제2항)

-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
-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헌혈 참여 시 공가 인정(안 제21조제10호 신설)

-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개선(안 제22조제2항 및 제10항)

-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함

○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안 별표2)

-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 휴가를 얻도록 함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1972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 **안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 **안 제17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연가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으며,

○ **안 제21조 제10호**를 신설하여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안 제22조 제2항 및 제10항**의 특별휴가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함과 아울러,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휴가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하여 민간근로자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출산 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에 이바지 하도록 하였으며,

○ **안 별표 2**에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확산**시키고자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3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3월 12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3월 12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3월 1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공포로 학교 주소 및 명칭변경과 학교이전, 지번 변경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학교 명칭 및 주소 변경

- 병설유치원

구 분	변경후 명칭	위 치
변경전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변경후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 초등학교

구 분	변경후 명칭	위 치
변경전	금능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31번지
변경후	충주금릉초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31번지

○ 주소 변경

- 병설유치원

유치원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오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38번지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각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6-2번지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6-2번지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 초등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오창초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238번지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29번지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4번지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각리초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각리 **112-1번지**	청원군 **오창읍** 각리 **646-2번지**
비봉초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95번지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 중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오창중학교	청원군 **오창면** 창리 151-4번지	청원군 **오창읍** 창리 151-4번지
각리중학교	청원군 **오창면** 각리 637-4번지	청원군 **오창읍** 각리 637-4번지

- 고등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오창고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7-3번지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7-3번지
청원고등학교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76-3번지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76-3번지

○ 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 병설유치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6BL**

- 초등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만수초등학교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 6BL**

○ 지번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 유치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증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480번지**
삼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19번지**
보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16-1번지**

- 초등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증평초등학교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056번지**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480번지**
삼보초등학교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05-2번지**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11-19번지**
보광초등학교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16-1번지**

- 중학교

학 교 명	주 소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증평중학교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00번지**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726번지**
감물중학교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산 85번지**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112번지**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개정안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 학교이전 및 지번 변경에 따라 해당 학교의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06년 12월 1일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금능동의 법정동 명칭이 금릉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금능초등학교"의 학교명칭을 각각 "충주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충주금릉초등학교"로, 주소지는 "금능동"에서 "금릉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 학교 명칭 변경시 "충주" 지역명을 표시한 것은 **경북 김천**과 **경기도 파주**에 동일명의 "금릉초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어 이들 학교와의 구분을 위하여 "충주" 지역명을 삽입한 것임

○ 청원군 오창면이 **오창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2006년 12월 28일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오창읍 관할구역에 있는 **오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3개원 및 오창초등학교 외 4개교**의 주소를 "**오창면**"에서 "**오창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에 위치한 만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1학급)과 만수초등학교(7학급)를 **오송생명과학단지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18학급 규모)하여 **2006년 9월 28일 이전**함에 따라 이들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괴산군 및 증평군의 경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증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외 2개원, 증평초등학교 외 2개교, 증평중학교 외 1개교 등 일부 학교에 대하여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 본 개정 조례안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학교이전** 및 **지번변경**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한 명칭 및 주소를 정비한 내용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금번 개정 요구안을 통하여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증평군** 지역의 학교를 확인한 결과 증평공업고등학교가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713번지**"로 **변경되었으나** 동 조례에는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20번지**"로 되어 있어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1의 증평공업고등학교** 위치란 중 **"620번지"를 "713번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5.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금번에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증평군 지역의 고등학교 중 지번이 변경된 학교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수정 주요 골자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1의 증평공업고등학교 위치란 중 "620번지"를 "713번지"로 수정

학 교 명	수 정 내 용	
	수 정 전	수 정 후
증평공업 고등학교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20번지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713번지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3. 15.
제 안 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금번에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증평군 지역의 고등학교 중 지번이 변경된 학교가 누락되어 추가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 골자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1의 증평공업고등학교 위치란 중 "620번지"를 "713번지"로 수정

학 교 명	수 정 내 용	
	수 정 전	수 정 후
증평공업 고등학교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20번지**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713번지**

3. 수정안 : 따로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별표 1의 증평공업고등학교 위치란 중 "620번지"를 "713번지"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별표 1]

고등학교

명 칭	현 행 (위 치)	개정안 (위 치)	수정안 (위 치)
증평공업 고등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20번지		....713번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7. 3. 1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 원 장 서 수 웅

간 사 이 상 일

위 원 곽 정 수

김 병 우

김 부 웅

박 노 성

(별첨 5)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07. 3. 13.(화)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지역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오전에 청주교육청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주교육청 안성배 교육장님, 청원교육청 김시영 교육장님, 보은교육청 박진규 교육장님, 옥천교육청 박진하 교육장님, 영동교육청 정구석 교육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교육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안성배 교육장님, 김시영 교육장님, 박진하 교육장님, 정구석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개최된 임시회 회기중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역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번 1년 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집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에 교육위원님들과 교육장님들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청주교육청 안성배 교육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로 교육장에 부임하게 된 저희들에게 분에 넘치는 축하를 해 주신 성영용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

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봄의 기운이 온누리에 가득한 오늘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성영용 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충북교육의 성과는 모든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교육에 대한 높은 안목으로 매사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되는 각 지역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 내용들은 새로운 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통해서 충북교육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올해에도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알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안성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 사항은 보고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교육청 안성배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 성영용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5분간 휴식을 하고 11시에 계속 진행

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 의장 성영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교육장님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새로 여기에 오신 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를 들으면서 또 사전 검토하는데서 생각난 거 몇 가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더 많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청주교육청입니다.

보고서 14쪽을 펴주시면 행복한 보금자리 유아교육이라는 주요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주는 공립유치원이 몇 개원이 있습니까?

뒤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관계관 석에서 "5개원" 하고 말함)

5개원 중에 기능직이 배치된 곳이 한 곳이죠?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다른 배치 계획은 없습니까?

●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서재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주교육청 관리과장 서재문입니다.

김부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치원이 독립 원을 가진 유치원이 5개원이 있는데 지금 한 곳밖에 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총정원제를 하다보니까, 유치원이 사무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인원 형편상, 초등학교도 학급수에 따라 1명이 있는 데, 2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기능직이 있을 경우에 사무실 배치를 한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빼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는 여자들만 있어서 거기에 남자의 힘이 필요한 곳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예, 알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에 재량사업비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장님 재량사업비입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예, 필요한 곳에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2-1부터 2-3까지 모두가 다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교육이라고 하면 적어도 청주 같은 데는 인적 자원도 많은데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다양한 외국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영어로 한정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 써주시면 어떠냐 주문하고 싶은데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영어뿐만 아니고 중국어, 일어, 기타 이제 많은 세계적인 그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영어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이 아니고 영어교육이라 하든지,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면 넓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쪽을 봐주세요.

맨 위에 청주학생 효도상 시상, 이런 업무가 나와 있는데 11개 교육청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만은 그래도 청주교육청은 청주교육청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학생효도상 기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제가 생각하는 효도상은 가난해야 되고, 병이 들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이런 데서만 효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효도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지금 현재 효도대상을 주기 위한 시상 기준은 제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하신 말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학생들의 공적을 받아 보면 아주 정말 천편일

률적으로 가난하고 노부모, 또 몸져누우신 분들에 대한 병간호 이런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그것뿐이 아니고 효의 범위를 넓혀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가난한 것은 지금은 죄입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누우시면은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그게 효도죠. 집에서 옛날처럼 궁상떤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효의 기준을 바꿔는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청원교육청입니다.

아주 좀 처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5쪽을 봐주세요.

우리 교육청 교육비전, 그리고서 죽 읽어보니까 글쎄요, 외국어나 외래어, 영문 약자로만 이렇게 죽 되어 있어서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더라구요. 청원교육청의 비전이라면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적당한 우리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뭐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 김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모국어를 완전히 배운 아이들이 애국심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교육청의 교육비전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데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8쪽에 맨 아래쪽 보면 학생중심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교육과정 편성 운영 하고 나와 있는데, 이 학생중심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흥미를 또는 적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도교사나 인적자원이 가능할까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요즘 우리 교육계 현실이요 학생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학생중심 재량활동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으로 가 주시면은 맨 밑에 체육교과 직무연수 개설 운영 하고 나와 있어요. 다른 교육청에는 보기가 힘든 것이 청원교육청에만 있길래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초등 40명, 중등 40명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무연수를

하시는 겁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보통 제가 알기로는요 육상 그리고 기계체조, 이런 기초 기본이 되는 종목을 가지고 체육교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영동교육청도 24명이 돼 있더군 그래요, 다른 데는 없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예, 마찬가지.....

● 김부웅 위원

그 다음에 34쪽을 봐주세요.

34쪽, 35쪽,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사용하는 용어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 하니까 학교가 무슨 폭력하는 곳이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예를 들어서 폭력사고예방, 학교 자는 빼놓고서. 그런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4쪽에 보면 그 밑에 효 실천 인성교육 시범학교 지원 하고 중간쯤에 있는데요 그 밑에는 품성교육 시범학교야. 그러면 인성교육하고 품성교육 시범학교는 다른 겁니까, 이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김부웅 위원

용어를 썼길래 혹시 어떤 의미가 따로 있나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74쪽에 드림 청원교육 실현을 위한 행정력 제고, 그 특화사업인데 중간쯤 보면 1인 1지식 이상 갖기 운동 전개, 2006년도에는 9%, 2007년도에는 50% 이상 참여를 했는데 1인 1지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저도 그걸 잘 몰라서요 물어봤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1인 1지식이라는 게 한 가지 지식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확실한 의미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청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교육청 17쪽을 보시면요, 공·사립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사립유치원 지원하고 나와 있는데 업무가, 지금 공립하고 사립하고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립유치

원에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원아들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든 지경입니다. 사립유치원에는 지금 15만 8,000원씩 되고 있어요, 월. 공립유치원은 5만 3,000원. 그런데 또 여기 지원한다고 그러니,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잘못하면 문 닫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지금 제 개인 생각도 사립유치원에 치여가지고 공립이 지금 자꾸 위축되는 기분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도교육청 사실 전부 업무인데, 그래도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전부 소화시키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7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과학문화벨트 조성, 또 거기 과학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과학문화벨트장 14곳 하면 그거 어떤 시설이 되는 겁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저희들 폐교를 이용한 학교도 있고요, 자연환경을 이용한 것을 합쳐가지고 지금 14곳을, 제가 14곳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 김부웅 위원

아니 문화벨트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여기 이어지는 거죠, 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리산을 거점으로 한 그 학교 간 그 야영활동 시 또는 과학활동 시 이어지는 단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과학테마교육장이 만약에 된 데가 있는 곳이 있으면 소개 한 군데만 해 주실까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현재는 지금 속리산을 많이 활용하고 산외면 장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다음에 31쪽을 봐주시면,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정보화 기기 지원, 인도네시아 PC 10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이 있는 겁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예, 이것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요, 저희 천성호 회장님이라고 지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교육감님하고 고등학교

동기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하고 직접적인 교류는 아니지만 간접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건데 이것이 순수한 제가 알기로는 새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51쪽을 봐주세요.

교직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죽 읽어보면은 보은교육청에서는 충북교총하고 정기교섭을 하고 교원노조하고도 단체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육은 교섭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보고, 또 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 김부웅 위원

만약에 단체에서 이 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교섭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아직은 이런 경험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약간의 일선 학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다행히 일선 학교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아니 교육청은 단체교섭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교육청은. 그런데 여기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런 교총이나 노조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단체교섭을 합시다 하면 할 말이 없게 되겠네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이것은 저희 자체 단체하고 얘기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지금 실적이 아무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김부웅 위원

다른 11개 교육청이 거의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앞으로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보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여쭙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면요 금방 질문했던 게 같은 건데 과학문화벨트 체험학습장이 52곳이라고 했는데 어떤 곳이 되나요?

● 옥천교육청 교육장 박진하

저희 옥천 지역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를테면 대청댐환경사업소랄지, 또는 폐교의 염색체험학습장이랄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관내에 지정을 해서 아이들을 벨트화

를 시켜봤습니다.

● 김부웅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를 해 놓으시고 좋습니다.

59쪽을 봐주십시오.

이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혁신 소리만 나오면 '아이고 참 이거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 I&U Call, 4MS, Action Learning, 뭐 S-PPM(Single Parts Per Million), CK운동, KMS운동, 상당히 많은 양의 외래어 또는 영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혁신 진짜 혁신해야 되겠대요, 이거. 우리 용어부터 혁신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내려오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지역교육청에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박진하 교육장님, Action Learning이 뭡니까?

● 옥천교육청 교육장 박진하

우리 혁신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과장님이 전에 도에서도 혁신팀을 담당을 하셨고 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과장님 힘을 빌리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세요.

●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박종칠

실천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 뭐 이런 뜻입니다.

● 김부웅 위원

우리말도 좋은 게 있는데 굳이 Action Learning, 또는 S-PPM, CK운동은 뭡니까, 3단계.

●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박종칠

이게 C가, K는 지식(Knowledg)이고요.....

● 김부웅 위원

거기 지식, 지식모으기 나와 있는데 거기 읽어봐야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쓸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63쪽을 봐주십시오.

옥천교육청에서 특화사업 중에 다른 시·군교육청에서도 이것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된 사례입니다, 이게. 3애 교육, 증봉정신을 중심으로 한 나라사랑, 지용 시인을 흠모하는 문화사랑, 또 자연 금강사랑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도요 향토교육을, 애향교육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애써서 장학금 들여 가지고 인재 육성해 놓으면 고향 몰라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고향을 찾아오고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애향인을 키워놓죠. 그래서 옥천교육청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박진하

감사합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다음 영동교육청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참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영동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초청토론회가 된 거죠?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예

● 김부웅 위원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퇴직교원을 위해서 연수회를 갖는다, 또 그분들의 많은 노하우를 후배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그 부분은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시책이라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전시켜 주세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예

● 김부웅 위원

27쪽을 봐주시면요, 맨 아래쪽 보면 자녀 따라잡기, 학부모인터넷교실 운영, 이 용어가 11개 교육청이 다 쓰고 있는데, 따라잡기, 이게 부정적인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못 가게 하는 거. 그런데 왜 자녀를 따라잡습니까. 자녀를 뒤에서 밀어주고 같이 따라가야지, 아니면 같이 해야지. 그래서 이런 용어를 혹시 상부에서 썼더라도 우리는 고치는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부웅 위원

함께 배우기 혹은 따라 하기 이런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두 번째 함께 만드는 즐거운 학교, 이 특화사업은 주요업무 시책 3에 있는 진취적 함양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군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만 영동지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하면 난계정신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예

● 김부웅 위원

다섯 분 교육장님, 제가 산발적으로 어수선하게 질문 또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되어야겠는

데 용어나 대상, 시기, 또는 사용 내용이 그대로 이기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외래어, 외국어, 영문 약자의 사용이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표기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상부로부터 오는 용어라고 해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꾸어 쓰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듀케어,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전에 US Care, 케어가 구호물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호물자가 왜 여기 와 있나 하고 보니까 그게 또 보살핌, 이런 뜻이대요. 이런 용어는 우리가 잘 쓰자 그 얘깁니다.

그 다음에 몇몇 교육청은 애향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교육이 좀 다양해져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도 통일 대비 교육이 소홀한 점입니다. 어느 교육청을 봐도 통일 대비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피상적인 얘기 몇 개만 있는데, 우리는 6.25를 통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 우월성이 이미 입증이 됐거든요. 그리고 핵문제, 남북한문제 이거 환상 깨고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해 주면은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 정말 모릅니다, 이거.

그런 가운데서도 몇 가지 특색 있는 이런 사업이 잘된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중에 충주 것을 보니까 향토탐사, 역사탐사 이런 것이 잘돼 있더군 그래요. 한번 참고로 해 보세요. 제천교육청은 업무담당자를 전부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줬더라고요, 주요업무마다 전부. 그런 것은 참 좋았고, 영동교육청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진천교육청은 주요행사 추진계획을 일람표로 쫙 제시해 줬어요.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음성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들 업무를 만드느라고, 재구성한 흔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단양교육청은요 외래어 또는 외국어 이런 영문 약자를 전부 시사 해설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옹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이

거는 다른 몇 개 교육청에서도 같은 질문으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 주요 특색사업 제일 첫 번에 책 읽는 학교만들기, 지금 디지털 정보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예, 도교육청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그게 초·중·고별로 다르겠지만 대개 몇 % 정도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저희들이 지금 몇 %인지 아직 그걸 제가 파악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고, 물론 이게 도교육청에서 재원이 배분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지만 가능한이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라도 빨리 이것을 완성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지금 주요하게 다루는 대학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데에서는 논술지도를 중요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논술지도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은 독서를 통해 가지고 독후감을 쓴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논술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중요하겠지만 가능한이면 도서실이 없는 데는 빨리 설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작게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도교육청에 예산을 좀더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5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것은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운동으로 숲을 가꾸는 학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자주 가보면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운동이 좀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 비싼 소나무 같은 것을 자꾸 사서 심느라고 예산을 들이는데, 또 심지어 어느 선생님은 다른 것은 안 하고 나무 옮기는 일만 하는데, 있는 나무는 놔두고 새로 심는 게 중요한데 자꾸 돈을 들여서 옮기더라고. 여기저기 옮기고. 그래서 왜 불필요한 데 돈을 쓰나. 그리고 또 뭐하러 소나무 하나에 200만원, 300만원 해놓고 누구 기증이라고 해 놓는가. 학교가 그런 고급 나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나무, 조화로운 나

무, 이런 것을 해서 아름다운 숲, 여름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늘, 또 숲이 많으면은 학교 자체도 시원해집니다. 얼마전에 그 보도에 보니까 전국에서 도시 숲 가꾸기, 도시의 숲 공원, 나무 비중이 충북이 꼴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봐도 그 넓은 운동장에 플라타너스 몇 개밖에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정서적으로나 학습면이나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몇몇 교장선생님 말씀드리면 돈이 있어야 하죠, 이런 얘깁니다. 나무를 값싸게 분양해 주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충주 같은 데는 중부육종장 같은 데 가서 장장님한테 잘 부탁하면 싼 나무는 대단히 많이 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해서 학교가 좀 푸른숲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청주교육청에서는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참 좋은 테마를 특색사업으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장님, 이거는 답변을 금방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 가시면 그 숲이 없는 학교는 그 숲을 많이 가꾸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청주시내 학교, 청주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가면 참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져 있는 거, 그게 꼭 비싼 나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학교가 아름다운 숲을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청주뿐만 아니라 청원이나 보은, 옥천, 영동 교육장님께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영용**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성 위원**

교육위원 박노성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주교육청 교육장님께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시면은 개인차에 알맞은 입체적 학력관리라고 하는 그런 큰 타이틀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 내용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입체적으로 학력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이것은 학력신장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학력관리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장학자료개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 상호 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진로지도교사협의회 운영 등 학교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학력관리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또한 그 학력제고 책임지도제를 강화해서 저희들 학교별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답변 정확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18쪽을 봐주실까요?

즐겁게 참여하는 자율 체육활동의 활성화, 상당히 용어가 길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건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동아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 1체육 동아리 가입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1인 1체육 동아리 교사 참여 및 지도를 함으로 해서 학교 여건에 알맞은 다양한 체육동아리를 조직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을 1개교 추진하는데 혹시 여기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예, 대성중학교가 하기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학교 사정상 거기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계공고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확정이 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 박노성 위원

대상 학교가 바뀌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예

● 박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교육의 특색사업 중에서 하나가 독서교육으로 꼽을 수 있는데, 책 읽는 학교만들기, 이것은 작년도부터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잘 하고 있는데 아침 독서 10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뭐 다른 청원교육청도 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작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

는가 분석을 우리 교육장님들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금년에 전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1570운동이라고 해서 15분간 1년 동안에 70권,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1530운동 해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아이들은 책이 두툼하고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15분씩 해서 1년에 30권의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15분간 책 읽기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최소한도 특화사업만큼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연말에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과 실천하기인데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청주 만들기 방안, 아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이 방안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이신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저희들이 청주사랑 친절 운동을 전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 생활예절,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학교별로 스마일 친절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청주시청과 함께 지금 계획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안성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교육청, 우선 김시영 교육장님께서는 다른 면에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체육에 대해서는 남 다른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청원군수하고 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취임 이후에 그런 점을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어제 청원 군수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타 시·군, 11개 시·군 중에서 체육보조금이 제일 적더라, 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니까요 체육회에 얘기해서 도와주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 **박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원교육청이 자치단체와 예산확보가 좀 덜 된 쪽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장들 회의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유관기관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실까요?

청주교육청하고 내용이 비슷한 얘기인데, 책사랑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것도 역시 10분 독서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청주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에서도 독서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요업무계획으로 이따가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너무 많이 불가능한 사업도 이 내용에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데 과감하게 장학사님들이나 혹은 행정직원들을 동원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못할 것은 전부 빼주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쪽을 봐주실까요?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활성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이거에 대한 방침이나 혹은 실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대안교육 위탁기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 5개 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 또 대안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 중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방학 동안에 2박 3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이 대안교육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원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김시영 교육장님, 작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청원교육청 금메달 혹시 땄습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두 개 땄습니다.

● 박노성 위원

금년도는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4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들었는데요, 뭐 거의 확실한 거는 두 개 정도는 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 김 교육장님께서는 체육, 특히 남이초등학교 계실 때 핸드볼 윤병숙 선수,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길러주시고 했는데, 옛날에 고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교육장으로 근무하실 때 청원교육청하고 음성교육청이 소년체전에서 노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소년체전에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충청북도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메달 몇 개를 따느냐가 굉장히 교육청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만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은 교육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35쪽을 좀 봐주실까요? 더불어 행복한 생활예절 교육을 강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실까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타 시·군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효경생활을 위한 예절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에 나오는데 저희 보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은(知恩) 감은(感恩) 사은(謝恩)이라고 해서 3은 교육을 통해서 예절교육을 특화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 박노성 위원

이것을 아주 지속적으로, 보은의 정신은 3은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고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학생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사랑관의 활용성 증대, 보은교육청 관내 한글사랑관을 혹시 개설한 게 있습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현재는 없습니다.

● 박노성 위원

그러면 청주에 있는 한글사랑관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예, 지금 그것이 여기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예, 그래서 이 한글사랑관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글사랑관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거의 유일한 시설로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화사업, 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작년도?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예,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옛날에는 특색사업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좋습니다, 특화사업.

그 다음에는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사랑의 효를 생활화하는 보은인 육성, 여기에서 맨 밑에 줄에 다양한 효 관련 체험학습 실시 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효 체험학습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저희 폐교된 산외학교 장갑분교장에 근처에 있는 데는 같이 활용을 하지만 나머지는 학교 자체의 그 부모와 함께 하는 야영활동을 통해서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 중에서 사랑의 꿈나무 손잡기 운동, 이것은 아주 용어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실천내용도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1공무원 1학생 결연, 혹은 작은 정성 큰사랑 나눔 운동, 이런 것들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학기초라 금년도 실적.....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금년도 실적은 아직, 2006년도에 저희가 결연을 448명 했습니다.

중식비 지원을 3,927만원을 했고요, 장학금을 445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학용품류를 한 600점 이렇게 한 실적이 2006년도에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이것은 IMF이후에 가난한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공무원 1학생 결연, 뭐 사랑의 꿈나무 손잡기 운동, 용어는 어떻든 좋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관기관이나 지역사회 인사, 혹은 출향 인사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셔서 많은 학생들과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1학생 1칭찬거리 찾기 운동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 보은 교육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옥천 교육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을 봐주세요.

29쪽에 보면 예의 바른 품성 함양에 더불어 행복한 생활예절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옥천교육청 교육장 박진하

저희 관내 학교에 효사랑관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색사업 저희 중봉 선생님의 얼을 이어받는 이런 특색사업이 있습니다만은 그 충·효·예 교육을 여기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 그 시범학교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효 예절 사랑관을 통해서 전통예절이랄지 또 우리의 다른 예절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앞으로 이 효 교육을 아까도 김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효 교육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3다 3무 3애 3행 교육,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전 학생, 전 교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3-2-5, 관심과 사랑으로 펼치는 금연 청정학교 가꾸기, 아주 산뜻한 용어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옥천교육청 교육장 박진하

그것은 초·중학교에 저희들이 금연 청정학교 가꾸기라고 해서 1년에 2번 이상 직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은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아이들에게 아주 그 감명 깊게 흡연에 대한 폐해성,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박노성 위원

그 다음에 63쪽, 아주 지역정서와 맞는 3애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마침 옥천에는 중봉 선생이나 정지용 시인 등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옥천지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옥천교육청 교육장 박진하

거기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요, 중봉정신은 저희 옥천에서 매년 중봉충렬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거기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지용 명시를 통한 아이들의 문화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용제도 저희 옥천에서 거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과 자매결연이 돼서 연변에도 가서 같이 지용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백일장이랄지 사생대회를 같이 개최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랑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옥천은 대청댐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각종 산업의 규제랄지,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체험학습도 하고 또 이제 금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박진하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동교육청 교육장님.

우선 표지가 참 저는 산뜻한 게 마음에 드네요. 이것을 보면 영동은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이 대번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근본을 바로 세우는 영동교육, 간략하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제가 취임하고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근본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기초 기본을 중시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이나 어 떤 활동을 할 때 기초 기본이 잘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하는 계획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박노성 위원

교육장님께서 소신있게 이렇게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9쪽을 봐주실까요?

영동대 체육 직무연수 강좌 개설, 이렇게 했는데 배드민턴하고 골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는 건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직무연수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영동대학교에서. 그래서 교직원과 지역사회 인사, 또 해가지고 연수 수강을 받습니다, 매년. 그래서 교직원들이 골프하고 배드민턴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교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연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8쪽입니다.

특화사업 중에서 맨 밑에 우수 학생 해외연수, 다른 교육청에서 보지 못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몇 명이나.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영동고등학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

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엄격하게 선발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노성 위원

아주 이거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다른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설득을 시키는데, 초·중학교에서 잘 올라가야 고등학교 교육이 잘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지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 박노성 위원

더욱 더 지역사회나 유관기관과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서 이런 것은 아주 영동교육,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추진하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구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그 특화사업 내용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넌출지게 20자 넘어간다든가 20자 근처에 가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로 키우는 실력 있는 학생,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만드는 즐거운 학교,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어를 너무 남발하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한 번 우리 교육장님들, 직원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서 외국어 꼭 써야 될 것은 쓰지만은 만약에 꼭 써야 될 것이 있다면은 맨 밑에다가 각주를 달든가 설명을 해 주세요. 괄호하고서 간단한 것은 묶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알지 솔직한 심정으로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도 모르는 용어가 여기에 있으면 그거 누가 추진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사업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계획을 쭉 봐요. 아,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히, 50페이지짜리를 30페이지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특화사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박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12시 1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회의계속)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여기 청주 초등교육과장 임규정 과장이랑 같이 근무할 때 저 친구가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학자들은 자꾸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논문 발표를 한다든지 책을 쓰고 학문을 만들어내고 우리 같이 보통사람들은 그걸 읽다가 시간 다 간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조금은 색다른 말을 쓰거나 외래어를 써야 귀티가 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폼이 나잖아요. 모르는 말이 많아서 이것을 붙여놓고 물어보려고 보니까 맨 끝에 단양을 보다보니까 뒷면에 전부 주석을 달아주었어요.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서비스 자료잖아요. 우리 군은 이렇게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할 때 보는 사람이 뭔가는 알아야 되는데 뭔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안 나오는 용어도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쓰면 귀티나고 좋으니까 쓰되 모든 사람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분 한 분씩 질문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수준이 맞으면 질문이 없는 건데 제가 공부한 게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자꾸 의심이 나서 많이 꼽아놨는데 많이 질문과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조금씩 피력하려고, 아주 작은 겁니다, 문제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학교만들기, 자랑스러운 전통 만들기 여기에 특색 있는 학교에서 브랜드 갖기 운동이 있는데 각 학교마다 브랜드가 정말 있는지, 이런 비전을 교육청에서 내보냈는데 학교마다 브랜드를 가지고 경영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느 교육장님이라도. 학교마다 브랜드가 있느냐, 내세울만한. 학교마다 아마 있다 하더라도 여기도 행복한 교실, 신나는 학교 했듯이 여기도 전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차별화된 데가 있으면 이런 데를 이렇게 격려해서 부각시켜서 실질적으로 실천이 눈에 띄는 그런 그 교육장님으로서 시책을 펴나갔으면 하는 바

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학교 있을 때 없던 게 있더라구요. 교기 게양, 교기 게양하는 학교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사랑을 위해서 교기 게양한다고 비전을 이렇게 내세웠으면 학교에 실제로 교기가 게양이 돼야 되는데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기가. 이건 그냥 이것 따로 실천 따로 하면 안 된다. 암만 작은 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애교심을 할 때, 교목과 교화는 다 있어요 설명까지. 그런데 교기를 게양한 학교는 아직 제가 기억에 없거든요. 교육장님들, 여기 계획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도 지시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공유를 하고 알고 그 군에서의 어떤 계획된 내용이면 실천 단위인 학교에서 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에 보면 본교 60명, 분교 20명 이하, 주민 70% 이상 찬성 시 한다라고 각 시·군마다 돼 있는데, 혹시 보은에는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없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 것이 발생하면 하겠다 그런 걸로 써놓은 겁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이것이 저희들 자체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내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단서 붙는 것이 1면 1개교.....

● 서수웅 위원

아, 글쎄 그건 있고요. 옥천, 영동도 마찬가지고 대상 학교가 있습니까?

(관계관 석에서 "없습니다" 하고 말함)

없는데 써놓은 거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요, 계획 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비전, 여기에 보면 교육비전이 있어요. 난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교육지표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전이 있는데 교육비전을 대부분 다 도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충북 에듀스타 2001,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군마다 특색 있는 비전을 내세우려고 이렇게 고심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아닌가 싶네요. 청원은 DREAM 청원교육, IT'S POSSIBLE, 신나는 학교, 행복한 교실 이렇게 했는데 꿈을 키우는 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긍정적인 비전을 앞에 세워놓게 했고, 옥천은 OK-Edu 이렇게 했네요. 이것도 뭔지 뉘앙스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뭔가 차별화하려고 했다는 게 비전에 나타나긴 했는

데 비전도 어떻게 보면 영동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비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차별화를 써서 했더라.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비교하면서 발전 제시를 하는 것도 앞으로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주 더 작은 문제로 가겠습니다. 효행상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학교 있을 때 느꼈는데 꼭 5월달에 그것도 몇 명, 이렇게 교육청에 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건가. 아니면 도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시인가.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볼 때는 교육감상 1명 5월달에 꼭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좀 우리 학교 효행 실적이 없으면 안 할 수 있지만 효행 실적이 있는 애가 3명이다 그러면 3명 다 해서 효행상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런 것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학교 재량으로. 효행을 발굴해서 효행지도를 하고 실적이 뛰어난 아이들을 표창을 합시다라는 제시만 하면 학교 나름대로 학교장 재량에 맡겨서 교육감상, 교육장상을 품의하면 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는가. 꼭 몇 명을 줘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닐텐데. 조금만 더 교육장님들이 융통성 있고 너그러운 표상을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학교의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비전을 실천한 사례가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늘 파악을 하고 당근과 채찍으로 비전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교육장님들의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구요. 친구사랑의 날을 4월 첫째 주 월요일, 이거 도교육청에 나온 겁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4월 첫째 주 하루는 도교육청에서 보내서 다 같이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 **서수웅 위원**

청주교육청은 세 번 정했더라구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그 둘은 청주교육청에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 **서수웅 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청주를 볼 때 세 번이길래 이거 날마다 친구의 날 하면 더 좋지만 자극을 주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딴 데는 전부 4월 첫째 주 월요일, 4월 2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7월 9일, 10월 24일 정한 이유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7월 9일은 중간에 친구라는 의미에서.....

● **서수웅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기에 가서 하루를 더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 서수웅 위원

후반기에 더 넣은 날은요 우리나라 거국적으로 이름 있는 날이에요. 둘이서 사과하는 날, 10월 24일입니다. 사과 주고 받는 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친구의 날 같은 것도 그래 기왕 정하려면 조금 차별화가 되던가 했으면 좋을 텐데 도교육청 그것을 너무 따르는 그런 게 아닌가, 자율성을 발휘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바로쓰기 대회를 보면 도 대회가 2학년 6학년인가요?

(관계관 석에서 "예" 하고 말함)

2학년 6학년만 참가시킨다고 한 데가 많고, 2,4,6학년을 참가시키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도 대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면 전 학년이 하면 안 돼요? 교육청 단위로.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보니까 고학년만 이렇게 돼 있는데, 2학년 6학년만 중요한 건 아닐텐데 이런 작은 거라도 교육장님들이 살펴보시고서 계획을 짜는데 참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전체적으로, 제가 무식이 탄로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데 교육장님들 같이 한번 걱정해 보세요. 건강인을 육성하는 체육교육에서, 각 시·군 똑같아요, 그 체육교육 항목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수업 질 제고 그랬는데 체육교육 수업에 과연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게 수업의 질 제고가 되는 건가, 체육수업에. 체육에도 물론 지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김시영 교육장님,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나 이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육활동이라고 해서 꼭 운동만이 아니고.....

● 서수웅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보건영역도 있고, 또 지적 활동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정보통신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 교육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체육하면 전부 육체적인 그런 움직이는 활동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외에 소홀히 되기 쉬운 것을 ICT를 활용해서 수업의 질을 제고한다고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작은 항에도 보면 웹 상의 수업자료 탐색 가공을 통한 수업방법 개

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조금은 체육하고 너무 이걸 웹 상에 이런 걸 하니까 조금은 그런데 혹시 저하고 공감이 가시는 면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교육장님들이라도 이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체육수업도 이런 거는 ICT 수업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같이 아시고 사석에서 혹시 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 이거 3다 3무 3애 3행 이런 것들 다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3다 3무 3애 3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한 학교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말 구호에만 그치고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학교 현장, 학급 단위, 아동 개개인, 선생님 개개인들이 이것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볼 때 제가 학교 현장에 있어 보니까 맨날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늘 머리에 두고 선생님들하고 걱정도 하고 했는데, 신나는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우승 하나만 하면 되더라고요, 우승. 그런데 제가 공부하기론 아이들은 가만히만 놔두면 하루에 350번 이상 웃는대요. 그러니까 걔들은 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교육을 부하함에 있어서 교장이나 담임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떤 통제를 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하다가 행복을 뺏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우리는 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행복을 누리는 방향으로 우리 학급경영을 해보자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도요 제 생각에는요 학교별 학급별 정말 행복하게 운영하는 학교나 학급 사례가 있으면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서, 그런 학교를 찾아서 교육장님들이 마음껏 이렇게 북돋워줘서 그 학교 하나로 해서 이웃 학교, 또 아는 선생님들 쪽으로 확산돼서 이게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하는 제 소박한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시한 비전들을 제가 즉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준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훌륭한 시책들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단위 학교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들인 것은 대부분 그런 것은 학교 단위별로 사례 수집에 전념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 다음에 사례가 발견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과 채찍으로 교육장님들이 임하신 지역교육청 단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

● 김병우 위원

반갑습니다.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자리의 성격부터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교육장님들께서 일단 브리핑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보고를 듣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선 업무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중에 보은 교육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취임하신 지 열흘 남짓한 그런 분들이신데 아마 이 기회에 각 시·군 교육청의 업무를 확인하고 파악하실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를 받는 우리 위원회도 각 단위 교육청의 업무들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그런 자리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점검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심도 있는 심의가 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을 일부는 계획을 내실화하고 알차고 충실하게 만드는데 반영도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시·군 교육청들의 업무들을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를 통해서 비교하고 참고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시·군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웠지만 권장할 부분, 또 약간 소망스러운 부분들을 비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금년도에 각 시·군 교육청의 업무들이 점검되고 보완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 교육청들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 계획서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해마다 학년도가 되기 전에 일단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교육지표

라든지 교육비전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내려오면 각 시·군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까지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단위에서 또 실행할 수 있는,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세부 계획들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대부분 아마 각 시·군 단위로 특화사업 계획한 거 이외에는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계획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취지라든지 뭐 한계라든지 하는 것들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들께 여쭙고 확인하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특화사업들을 중심으로 아마 점검도 하고 여쭙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위의 계획이든 간에 그것이 주기별로 세워야 되니까 세우고, 또 그대로 답습할 수 없으니까 바꾸고 그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계획 같은 것을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할 것은 계속하되, 폐기할 것은 폐기하되 또 신규사업도 새로 설정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각 시·군 교육청에 작년과 올해 계획들을 조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는 해봤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각 교육장님들께 작년의 특화사업과 올해의 특화사업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바뀌었으면 어떤 의미로 바꾸었는지, 폐기한 부분이 어떤 한계가 있어서 폐기를 했다던가 또 새로 채택한 사업은 어떤 취지로 했다던가 하는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준비되는 교육장님들부터 작년 사업과 올해 특화사업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청주교육청은 전년도와 특화사업이 내용적으로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그 특화사업을 이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단지 용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이 전년도 것을 이어서 금년에는 더 큰 결실을 맺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김병우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년에 해 오던 것을 심화시켜 나갈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입니다.

저희 청원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을 활

용한 '두뇌 청원 21' 특화사업을 제외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활용한 두뇌 청원 21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적극 추진한 결과 지역 여건을 활용한 영재교육이 정착되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특화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적극 추진한 결과 화장실 문화가 계획대로 향상되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 김병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입니다.

저희 특화사업은 2006년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용면에서 확대 실시하고 그리고 금년을 특화사업의 정착의 해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으로는 그 시상 내용을 작년도 같은 경우 독서활동에서 130명을 시상을 했는데 금년도는 목표를 210명으로 잡은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박진하

옥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특화사업 두 가지 항이 2006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욱 심화 확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영동 특화사업이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교육을 통한, 작년에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한 것을 올해는 논술하고 영어교육을 확대해서 더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음악교육의 활성화는 작년에 전통음악교육을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바탕 위에다가 올해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4,2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방과후 활동을 하는데 더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 푸른 꿈 삼도봉 대회를 했는데, 이것은 해보니까 일회성으로 행사로 되어가지고 올해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튼튼한 학생, 건강한 선생님으로 전 학생 전 교직원들을 위한 그런 특화사업으로 바꿔서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해 말해서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좀 갑작스럽게 생각하고 드린 질문이었는데 실무단에서 이미 예상 답을 준비를 하셨던지 대번 교육장님을 보좌해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무단의 보좌능력에 솔직히 놀라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계획서들이 대체로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섯 분 중에 네 분 교육장님들은 새 학년도가 들어서서 막 취임을 하셔서 교육계획에 참여하시지는 못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새 교육장님들의 어떤 교육관이나 또는 방침이나 하는 것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있으신 교육청에서는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청원 교육장 김시영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교육과의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기초 기본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돼서 교과연구회와 연계한 기초 기본교육에 힘쓰고자 유·초·중 교과연구회 활동을 통한 교실수업 도약을 통한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청원 교육장님께서는 금학년도 청원군 교육계획의 수장으로서 집행단의 사령관으로서 새학년도 계획에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하시는 걸로, 그런 의지로 이렇게 읽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 중의 하나인데 학교 단위 계획이나 시·군 교육청 단위 계획이나 도교육청의 계획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은 보면은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아마 이렇게 짜고 편성을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것에 바탕이 돼야 할 업무계획은 나중에 확정이 되고 짜여지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시·군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한 것이 벌써 몇 달 전입니다만은 업무계획은 지금 심의하는 이런 자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금학년도에 집행할 예산과 오늘 브리핑하신 그런 업무간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셨는지. 혹시 그런 순서가 뒤바뀜으로 해가지고 혹시 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혹시 점검하신 교육청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계획들이 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사업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

성들을 아무래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관행 비슷하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도 단위든 군 단위든 단위 학교든 그런 부분의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청주 교육장 안성배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세워진 예산을 근간으로 해서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때 올릴 계획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책 읽는 학교 만들기, 새삼 독서의 중요성을 제가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크게 중점적으로 제가 계획 속에 넣으려 했는데 이미 세워진 계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자독서신문발간, 그런데 이게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전자독서신문을 발간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인터넷 상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편집하는 형태밖에, 비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말로 1차 추경에 우리가 더 필요로 한다면 1차 추경에 올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고 난 뒤에 2차 추경에 올릴 것인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것을 다 예산과 검토는 못해 봤지만 지금 그러한 단계까지는 아마 모든 교육청이 다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다른 교육청도 다 비슷한 실정일 테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과 예산을 같이 맞물려서 편성하고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두고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점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자세한 질문은 약하고요, 다만 한 가지, 물론 도교육청 업무계획에 의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각 지역교육청에서 느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에 대해서인고 하니 그 혁신업무 중에, 혁신과제 중에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해서 Garbage 박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굳이 그렇게 영어로 써야 되는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의문스럽습니다만은 휴지통이나 쓰레기통일 테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시나 관행적인 어떤 업무 같은 것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신고

하듯이, 이렇게 제안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없애자,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 같은데 사실 의미 대단히 좋습니다. 그전에 공문서 경감을 위해서도 리콜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단위 학교 현장에서, 요전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교육적인 그냥 업무를 위한 업무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로는 느껴지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리콜을 한다든지 또는 Garbage 박스에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접어두고 뭉게고 하기는 쉬워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불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쓰레기통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Garbage 박스에 쳐박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취지인데 이런 취지들을 잘 살리려면은 적극적으로 불필요하면 불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건의하고 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특히 지역 교육청의 수장이신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스스로 창안하신 비형식적인 부분을 단위 교육청 사업에서 당연히 이렇게 걸러 내시겠지만 또 그 Garbage 박스를 이용해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은 너무나 관행화된 버려야 할 것들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Garbage 박스에다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실 의지가 없는가, 이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의 질문은 약하고 오늘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곽정수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교육장님들도 취임하신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아마 각 기관의 단체, 이런 데 또 취임인사를 다니시느라고 업무파악도 어려우셨을 텐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까 우리 김병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보완하고 그러는 자리가 돼서 금년도 충북교육이 일층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제를 이렇게 보니까요 아까 우리 김부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체제를 본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캘린더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일종의 서비스인데 딱 피면, 아, 몇 월 며칠날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행사가 있고 하는 게 교육청별로 죽 정리가 되고, 또 담당자가 누구다,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아, 이 교육청에서 언제 무슨 행사가 언제 있구나 하는 게 돼서, 또 내년도 교육계획에 피드백하기도 편할 테고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했으면 하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통사항 한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유치원에 많이 다녀보시겠지만은 교육목표가 유아교육에 적합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아교육의 유치원이 진짜 교육목표가 적합한지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역교육청 특화사업 관계인데 청주교육청이 말만 바꾸셨다고 이래 하셨는데 책 읽는 학교 만들기와 작년에는 다양한 특수재능 개발로 전 학생의 에듀스타화, 이렇게 작년도 사업명이 그런데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청원 같은 경우 또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 대개 지속사업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종료 사업에 대한 목표대 성과, 어느 정도 왜 그것을 그만두게 됐는지 살펴봐 주시고, 지속사업은 중간평가를 해 봤는지, 또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뭐라서 계속 지속사업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한 그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이 관계를 세 가지로 하셔서 A4용지에 두 장 이내로 해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이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껍게 해 갖고 왔어요. 뭐 언제 뭐 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제 욕께나 했을 겁니다, 이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제가 A4용지 석장 이내로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뒷말은 잊어버리셔서 1년치 이렇게 한 걸 아주 꽉 묶어서 200페이지를 갖고 왔어요. 저도 못 읽어봤어요. 중요한 것만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 학교의 발전은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의 그 소신있는 업무계획서를 기본으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계획을 재구성해서 연간 업

무계획을 학교장에게 교육장님들께서 제출을 받아서 그분들의 업무추진과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고, 체크하실 것은 체크하셔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래 봐도 학교의 업무추진 계획을 교육청에 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모든 거 관리하기가 쉽고 학교장도 또한 자기가 교육장님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학교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학교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계획수립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교육장님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보여주신 교육장님들의 의욕적인 실천의지를 발휘하셔서 올 한해 업무를 추진하시어 훌륭한 교육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청 등 5개 지역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 의사담당 신현영

오전에 이어서 충주교육청을 비롯한 6개 지역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교육청 손병기 교육장님, 제천교육청 김영호 교육장님, 진천교육청 최철환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청 김세영 교육장님, 음성교육청 박인수 교육장님, 단양교육청 김종근 교육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지역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직책을 맡으신 손병기 교육장님, 김영호 교육장님, 최철환 교육장님, 김세영 교육장님, 박인수 교육장님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개최된 임시회 회기중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역교육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계획은 금번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집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및 기과별 현황과 현안 문제 등을 파악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들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청 손병기 교육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그동안 날씨가 아주 고르지 못하고, 또 을시년스럽던 불순한 날씨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아주 포근하고 쾌청한 이런 날씨로 교육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아주 기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성영용 의장님과 곽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김병우 위원님, 김부웅 위원님, 박노성 위원님, 서수웅 위원님, 이상일 위원님!

충북교육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우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바른 잣대로 우리 충북교육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그를 통한 건설적 대안 제시, 그리고 견제와 비판으로 우리 충북교육은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성장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교육의 복지와 혁신 구현을 꼭 이루겠다는 신념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오늘 이 자리가 지역교육이 거듭나는 뜻 깊은 역사의 자리로 매김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6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대신하여 굳게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3일 충청북도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 의장 성영용

손병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주

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순서는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증평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교육청 손병기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증평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 성영용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 여가 경과되었습니다.

14분간 휴식한 후에 3시 45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 의장 성영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단양교육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불과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 하랴, 관내 유관기관 인사 다니랴 그래서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아주 차분하게 소상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또 오후에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보고한 보고서 양식을 보고서 지역교육청마다 특색있고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서류를 제출해서, 그것을 비교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나름대로 좀 잘된 부분은 서로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캘린더처럼

뒤에 일정이 들어 있는 교육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은 언제 무슨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유인물을 만드는 목적이 일종의 서비스다, 그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한 순서다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거기에 담당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어느 교육청에 보면은 영어로 많이 써있었는데 그것을 약어를 뒤에다 부록으로 달아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읽어보면 알 수 있도록 안내가 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청별로 그 특색사업이 전 도적으로 파급되어서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교육장님하고 다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보니까, 지금은 코시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문화 가정에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여성을 활용한, 원어민이죠 그러니까, 그 원어민을 활용한 지역 교육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국제화 글로벌 이런 말을 쓰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프로그램은 상당히 권장할만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경비도 작게 들 수 있고, 강사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문화 가정과 또 우리 학생들과 또 그 통합하는 그런 의미로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교육청을 보고 참 선진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육청은 보니까 군청에서 지원을 해서 외국어, 원어민을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아까 대준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2억 정도, 1억 9,000 얼마 정도를 괴산·증평교육청에서 그랬는데, 거기는 조금 또 그것을 보면서 두 개 시·군이 한 교육청에 들어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하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을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는데 괴산군은 초등학생을 지원해 주는데 증평군에는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 얘기가 없어서,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증평군에도 그런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두 군수를 잘 중간에서 저기를 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 교육 시책에 보면 가장 첫 번에 나오는 얘기가 학력신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학력신장 얘기가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거기 보면 멘토, 멘티 해서 수업기술 향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고리이어가기 해서 2,3,4단계 등등 여러

가지, 또 신규교사는 그 수업을 참관해서 수업기술 높이기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청마다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한 가지 좀 빠졌다 싶은 게 뭐냐면은 학습지도안에 관한 얘기가 한 교육청도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학습지도안이다라는 것을 우리 건축으로 얘기하면 설계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설계도에 대한 공유나 그런 부분 얘기 없이 그냥 집 지어놓은 거만 보고 따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학습지도안에 관한 교육청 나름대로의, 무슨 이걸 검열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나름대로 설계도가 제대로 갖춰져야지 수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창문 낼 위치나 부엌 위치나 거실 위치나 이런 것이 기분에 따라서 바뀌면 그것은 건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수업도 정확한 수업 설계에 의한 지도안이 없이 그냥 가서 즉흥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제가 일선에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분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업 질 향상, 또 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 학습지도안 문제도 한번 교육장님께서 꼭 챙겨야 할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의 국소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단양교육청에 보면 참 단양군에서 지원하는 돈,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돈 등등 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의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던 것이 그 피라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우리가 앞으로 잘해 보자라는 그런 시금석으로 삼자라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더 잘하자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고, 또 해석하는 사람이나 그 입장에 따라서는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상기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우리 교육의 치부를 나타낸 것으로써 단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넓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은 국지적인 작은 분야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셨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교사 집단이 미래를 부정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교장 너나 잘 하세요"라든지 또 "교장선생 나 팔아서 자기 체면 세우시네" 또 "장학회 돈 눈먼 돈, 아 유 땡큐 베리 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되도 않는 입시 돈, 교장 너나 잘 하세요" "우리한테 밉보이면 교장 너도 국물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죽,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사 집단이 미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뭐 우리 교직사회도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지만 더 교육장님이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될 문제는 단양의 군민, 주민, 학생, 단양 군수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유지 인사에 대한 그 멍든 아픈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같이 화합해서 앞으로 잘 갈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공동으로 가져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양 교육장님 이런 일이 있다고 사기 죽지 마시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더 우뚝서는 단양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또 제천 교육장님, 요전에 한번 언론에 보니까 신규교사 임용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선하게 비판을 한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가 제천에 비율적으로 기간제 교사가 몇 %가 났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 안쪽에서 들여다보면 매번 순환되는, 번복되는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역에 홍보를 한다거나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이런 것이 다시 이런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천만의 무슨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려둡니다.

뭐 좋은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언론보도를 보다보니까 어느 교육청에서는 급식 쌀을 다 군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설성미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게 음성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런 또 협조관계가 잘되는 그런 분야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문일답은 안 하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아픔이나 고민이 사실은 우리 같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의 성격부터 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교육장님들께서 브리핑을 하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시고 하시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자리는 제 생각 같아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하는 자리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중에 단양 교육장님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시고 결재를 하신 입장이시기 때문에 다 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아마 전임 교육장님들과 실무진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업무들을, 계획을 아마 파악하고 숙지하시기도 벅찬 기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자리도 아마 그것을 심화시키는 자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지역교육의 1년 설계를 파악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에 단위교육청 사업에 대한 심의권이 지금 여기에 작동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려서 좀더 내실을 기하고 알차지는데 반영을 하게끔 그런 어떤 심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간에 타 시·군 교육청의 그런 계획이나 아이디어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참고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곽정수 부의장님께서 각 시·군 교육청들의 그런 계획서들을 아주 세심하게 비교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우리 각 시·군 교육청의 교육이 더욱 내실을 기하고 알차지는데, 그래서 계획대로 더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교육장님들의 보고를 꼼꼼히 듣고 또 계획서를 세심하게 살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계획들이 단위 학교로 치면 교육계획서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들이 수집되는 과정을 보니까 대체로 도교육청의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교육지표라든지 교육비전이라든지 중점 시책, 그리고 세부계획까지 나온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에 적용방안이라든지 세부실행 계획을 이렇게 하는 것이 시·군 단위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가타부타 또는 취지가 어떠냐 뭐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각 시·군 교육청별로 계획하신 특화사업

들은 아마 교육장님들께서도 책임, 또 소신껏 추진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해마다 주기적으로 바뀌니까, 또 답습할 수 없으니까 새로 한번 짜보자라는 것보다는 전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뀌는 것이 좋지 않으려니와 심화 발전시킬 것은 계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별로 금년도 특화사업 보고를 해 주셨는데, 특화사업들 금년에 아까 보고해 주신 그 특화사업들과 지난해 특화사업들을 비교하시면서 혹시 바뀐 부분이 있는지, 또 심화시켜 나갈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도 대충 일별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다보니까 각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부탁이라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되시는 교육장님부터 작년도 특화사업과 올해 특화사업의 바뀐 점, 그리고 그 취지나 이유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면으로 여기 지금 도표한 사업들은 제가 지금 여기 보고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혹시 폐기한 사업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정리가 돼서 그런지, 혹은 실효가 없어서 그런지. 또는 신규로 계획하신 계획들에 대해서는 취지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입니다.

단양교육청은 지난해에 교수학습센터 운동, 또 다양한 체험활동, 영어교육, 이 세 가지를 특화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영어교육을 빼고 나머지 두 가지를 바꿨는데, 바꾼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역 교육청의 특화사업은 전 학교와 더불어서 전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특화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첫 번에 있었고, 교육청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두 번째 생각이 있었고, 세 번째, 그중에서 교수학습센터는 이미 시설이 완료됐고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을 구태여 특화사업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바꿨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음성교육청은 세 가지가 다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시작을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용이 지속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전보다 더 알차게 내용을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는데 올해는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는 음성군이 다 아시다시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나신 곳이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어민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하고, 군 자체로 지원해 주시는 원어민이 많지가 않아서 극동대학과 협약체제를 갖추어서, 지난번에 극동대학교 총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원어민이 6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명이 각 학교에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원어민이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추진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충주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청 특화사업도 지속사업인데 이제 첫 번째 수업기술 고리이어가기에서 작년에 한 것에서 좀 미흡한 것이 1 대 1 멘토링, 멘토는 해놨는데 그 과정이 만나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충주교육청의 소회의실을 개조해서 교육사랑방으로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지금 방을 꾸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스타를 한 50명 정도, 최우수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서 연구나 수업태도가 뛰어난 분을 50명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멘토링해서 월별로 수시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수업기술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시책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다 영역 영재성 싹트기에서는 2006학년도까지는 영재교실을 3개 분야에, 삼원초등학교에 발명교실을 운영을 했고요, 중앙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에 과학, 수학 분야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007학년도에는 특별 영재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충주 연수초등학교에 개설을 했는데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했는데 그것은 아주 대상을 저소득층 어린이 중에서 뽑는 거에요. 뭐 결손가정이라든지 급식비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해서 20명을 별도로 해가지고 영재교실을 해서 지금 총 4개 그룹의 영재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애향자긍심 고취에서도 똑같은 특화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자, 이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작년에 제가 시범발표를 해보니까 영어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 선생님이 그 수업만은 영어로 교수 영어를 하니까 어린이들도 모두 영어로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져지고 나가서 글로벌 인재는 아주 영어를 생활화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다지려고 특화사업으로 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과장 김형수

우리 교육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각 특화사업에서 한 가지씩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실수업 도약 수업기술 고리잇기는 지금까지 약 7년간 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업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한 50여 명의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대회에 참가해서 수상자 중, 또는 교육 교과과정에서 연구해서 우수자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쭉 있습니다. 여러 분들 중에서 한 50여 명을 모셔서 그 수업대회 나가시는 분이나 신규교사에 대한 면담, 또는 임상장학을 해서 사실 수업대회에서 해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각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에 대한 내용을 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꼭 해야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금년도 하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청에서도 문호를 열어서 교육청 소회의실을 개조해서 선생님들을 모셔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영재성 개발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초등학교에 특별아동들에 대한 영재교실을 더 추가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지금까지 한 내용을 심화 발전시켜서 다양한 교육청 단위의 발표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향심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충주사랑 운동 전개는 애향심에 대한 충주에 따른 책자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향토적인 체험학습도 각 지역별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난해에 반기문 총장님이 충주에서 탄생을 하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발전시키고 승화시켜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시는 분이나 과거에 충주의 예를 들어 임경업 장군이나 그런 분들이 학교 주변에 특색

적으로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1교 1사랑 주제를 정해서 학교 주제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쪽에 대한 향토사랑 내용을 교육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 학교를 가면 그 지역의 주변에 그분을 위한, 또 그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해서 그 내용에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환경과 아울러서 교육내용을 설정해서 지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괴산·증평교육청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청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특화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생명교육 강화를 통한 조화로운 인간육성, 내고장 바로알기 체험학습을 통한 애향심 함양, 이 두 가지를 심화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성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은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 경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증평교육청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생명교육 강화를 2007년도에도 좀더 지속적으로 심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명교육 강화를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고장 바로 알기 체험학습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은 문닫은 학교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2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9개 학교는 매각이 됐고 자체 활용하는 쌍곡분교, 자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된 곳이 13개 학교인데 임대수입이 1년 동안에 작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13개 학교 임대된 학교가 각종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미술체험학습장, 도자기, 인형 등등 해서 괴산·증평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시골에 있는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체험학습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괴산·증평교육청에서는 내고장 바로 알기 체험학습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특화사업으로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업스타 함양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괴산군청에서도 교육경비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수업의 활성화, 그래서 아까 곽정수

부의장님께서 괴산교육청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괴산 증평 관내가 23개교인데 초등학교가, 괴산지역이 15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15개 학교에는 원어민을 모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평지역은 사실 2003년도 8월달에 개청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 생긴 지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괴산지역에서 저희들 교육경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 영어 원어민 활용으로 5,000만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선수 육성하는 꿈나무 육성으로 3,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 군수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증평지역이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 괴산 증평지역은 사람 교육시켜야 되겠다, 첫 번째 생명교육. 두 번째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문화체험을 시켜보자. 세 번째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원어민 영어 활용,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제천은 신규 특화사업이 많네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호**

제천교육청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 교육계에 물의라고 할까,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전임 교육장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교육계획과 또 모든 교육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지금 최북단에 있다보니까 어떤 시민들의 정서가 지금 일반 관계에도 좀 홀대를 받지 않나. 뭐 연수타운이라든가 혁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좀 가슴이 아픈데다가 이번에 공교롭게도 기간제 교사가, 신규교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기간제 교사가 와서 어느 학교에서는 담임 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불거져 나온 부분인데 제가 좀 부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매듭지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시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결의대회까지 해서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밑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더 이상은 확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도 제천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 쳐놓고는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은 학생이 들어갔

고, 저도 작년까지 제천여고 교장으로 재직 시에 평년작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슴에 응어리진 것은 교육이 미워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싸잡아서 저희들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 충분히 이 내용도 간파하지 못하고 기관장들이고 모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오늘 제가 보고가 조금 소홀한 거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공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학생들이 거칠고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번에 학력제고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제천에 머무는 교사들이 67%이고, 한 30% 정도가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천은 떠나려고 하는 교사는 많은데 머물려고 하는 교사들이 적고, 또 오려고 하는 교사가 적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제가 인사담당 파트와 상의를 해서 우리 제천 시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력제고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 급별 맞춤형 학력제고 방안을 공모를 해서 선생님들 마음도 가다듬고 지역주민도 가다듬기 위해서 학력제고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도시형 17개 학교, 그 다음에 읍·면형 12개 학교, 그 다음에 농촌형 5개 학교를 맞춤형 학력제고 방안을 공모해서 스스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공교육을 확실히 내실화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우 위원**

업무를 파악하신 기간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교육장님들의 열의나 소신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정말 미덥습니다.

하실 말씀 더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또 교육장님들의 열정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의 특화사업들을 보니까 단양교육청이나 괴산·증평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요 예산까지도 체크를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전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봅시다 하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년에

보면 학교단위든 도교육청이든 교육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먼저 짜고 보통 하반기 들어서면 이제 예산부터 편성을 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먼저 짜고 교육계획이나 업무계획은 2월말에 가서나 이렇게 확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과 예산은 항상 같이 가게 되는데, 물론 교육계획에는 비예산 사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결부되어서 같이 검토되고 짜지는 것이 더 탄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후로 금년부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상 하반기 들어서면 바로 명년도 예산을 아마 편성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차기 연도 업무계획을, 혹시 지금 당장 교육장님들께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같이 설계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차지한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 유인물을 보면서 교육비전을 제시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낸 대로 에듀스타 2010 그런 다음에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요, 단양은 그 비전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에듀토피아 단양 실천, 그랬습니다. '에듀토피아' 아주 매력있는 말이잖아요. 교육낙원 단양을 만들겠다.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그런 말 쓰지 않고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신나는 교실, 아름다운 학교가 아니고 단양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덕성) 힘(능력) 멋(소양)을 갖춘 인재 육성'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장님의 어떤 교육철학이나 소신이 나타나는 비전을 세운 것이 차별화가 된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지역교육에 임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별성 부분을 살펴봤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교육장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질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런 게 제가 볼 때 어떤 앞서가는 선진사고나 계획이 있으신 교육청과 공유하거나 또는 제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함께 참고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못되는 얘기도 있

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 1특색 과학테마 라이브러리 운영, 이게 시·군별로 다 있어요. 처음에 이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아니 학교에 선진화된 도서실 리모델링 다 해놓고, 또 1교 1특색으로 과학테마 라이브러리를 운영한다. 이 라이브러리가 제가 알기로는 도서실인가 이런데 꼭 라이브러리라고 써야 하나 해서 봤더니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낸 그 주제를 꼭 그대로 써야 되는가. 그리고 도서실 리모델링 하는 학교를 보면 현장에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읍내나 시내에 있는 학교일수록 도서관 정말 무용지물이랍니다. 돈만 억수로 들였지 문제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거기까지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답니다. 그래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나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어느 학교마다 현관에 들어가면 거기가 도서실이래요. 들어가면서 이 책 빼 가지고 가고, 학급에서 담임이 필요하다면, 책 가져와 그러면 손수레 가지고 와서 빼다가 읽고 넣고 넣고 그런대요. 오히려 그런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볼 때, 그래, 꼭 도서실 따로 있고 과학테마 라이브러리를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서 교육장님들이, 이게 학교 얘기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까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이것을 보고 그대로 쓰지 않도록 학교장님들께 재량권을 줘서 학교 특색이 부각되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교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단선진화 지원으로 교육청마다 다 기준 학급당 30만원씩 이렇게 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학교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급당 30만원씩 교부한 금액을 그대로 쓴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단위로 30만원씩 하라니까 어떤 목적으로 교부를 하는 겁니까. 혹시 확인해 보신 교육장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학교 회계에 들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 서수웅 위원

들어 있는데 학교마다 공히 30만원이다, 학급당.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30만원 중에서 학교에서 재량으로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학급에 일정 부분 더 쓸 수도 있고, 어느 학년에 집중 투자해서 한 2,3년 동안에 교단선진화로 바꿔주는 겁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볼 때는 학급당 30만원이 똑같이 든다고 그러면

원래 30만원씩 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자재를 조치하고 정비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 쓰는 돈이 그겁니다.

● 서수웅 위원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있을 때 현장을 살펴보면, 30만원 정도 똑같이 뭐 해라 해서 써내면 필요한 데는 100만원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없는 학급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재량권을 줄 수 있다?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예

● 서수웅 위원

그 다음에 계획서에 보면 효행상을 주는 것는 꼭 5월달에, 관내 몇 명, 그러니까 교육장상 몇 명, 교육감상 몇 명이 정해져 있죠? 이 계획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학교에 계획서 나갈 때는 교당 몇 명 이런 것도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행사도 다 일괄해서 어떤 행사에 시상을 할 때 꼭 몇 명, 또 시기를 한정할 게 아니라 조금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왜냐하면 효성이 지극한 아이가 한 학교에 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량권을 줘서 교육장이 많이 줄 수 있다 하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또 꼭 5월달에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5월 지난 다음에 6월달에 효행하면 못 타잖아요. 이것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조금만 더, 도교육청에서 내려보낸 거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어서 재량권을 행사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어떨라나 모르겠습니다.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제가 중학교 있을 땐데요 월별로다가, 그러니까 청주여중에 있을 때는, 청주여중이 무심천이거든요. 그래서 '무심인' 해가지고 지금 같이 특별한 분야, 효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한 학생들은 월별로, 학급별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학교장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는, 도에서 주는 교육감상 그런 거는 한정되는 것 같아요.

● 서수웅 위원

그래서 이 계획으로 볼 때는 이제 학교에서 이것을 받아서 참고로 할 테니까 그런 재량권 항목을 하나 삽입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 다음에 친구 사랑의 날을 4월 첫째 주 월요일로 다 정했네요, 여기 북부지방은요. 그것도 오전에 물어봤더니 도교육청에서 그날로 정했다는데 그렇다면 교육장님들이 볼 때 우리 시·군에는 지역적으로 볼 때 친구 사랑의 날을 더 많이 해서 아이들에게 우정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 하면, 청주 같은 경우는 세 번 했더라고요. 7월 9일, 10월 24일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7월 9일은 친구사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그러고, 10월 24일은 둘이서 사과하는 날, 사과데이죠 우리나라의.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친구의 날을 월정으로 해서 월 며칠며칠 한다든지, 매월 한 번씩 한다든지,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차별화가 됐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 텐데 전부 똑같으니까 각 교육청별로 질문할 얘기가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하신다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글 바로쓰기 대회에 참가하는 대상 학년을 선정한 것을 보니까 거의가 다 2학년, 6학년, 그리고 2,4,6학년 정한 데가 한 군데, 또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2학년, 6학년으로 정한 것은 도교육청 한글바로쓰기대회를 2학년, 6학년 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한 교육이지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행사 대비 아닙니까? 한글바로쓰기 교육을 한다라고 그러면 군 대회나 학교대회는 전 학년을 해가지고 도 대회가 2,6학년만 있다면 그 2,6학년만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시상폭도 넓히고 전 학년이 한글에 관심을 갖고 바로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역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군 공히 똑같이 쓴 계획을 보면 홍보혁신 해놓고 '홍보가 일의 절반' 이렇게 썼어요. 맞죠? 홍보가 일의 절반이에요. 하는 것을 남한테 알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시·군이.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발간하는 어떤 홍보성 유인물이나 또는 기본 언론사나 뭐 홈페이지 탑재, 이 정도, 또 가정통신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봤어요. 이렇게 관례에 의한 수동적인 홍보보다는 좀 공격적인 방법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보면 평창교육청에서 저한테 와요. 나 평창교육청에 내 이메일 보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매일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것 같아요. 교육청 단위로 학부모들한테 아동,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지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가정교육 자료안내, 또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공격적으로 학부모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학교 홍보도 됨과 동시에 같이 동참해서 아이들을 바람직한 쪽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홍보가 어떨까. 저는 현장에 있을 때 학교 홍보 조금 거북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학교 뭐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잘 하는 사람 있어요. 미리 홍보 딱 써가지고 신문사에 딱, 이런 얘기 공식상에서 해도 되는지 몰라도 봉투 좀 첨부해서 보내서 신문에 나면 그것을 가지고 스크랩해서 탁 놓고 이게 자랑이냐, 이건 아니다. 그건 정말 의미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하도 홍보가 잘 돼서 신문사에서 그것 좀 부치시오 하면 그때 준다든지, 아니면 미리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그냥 홍보했을 때 오면 오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알리기 위해서,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지말고 좀 공격적으로 내실 있는 이런 홍보 쪽에다가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운동 전개가 전부 똑같죠?

전부 3다 3무 3애 3행 전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육청이고 어느 학교고 이건 지시가 다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한 학교 만들자. 그랬을 때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제일 잘 실천하고 정말 행복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청에서는 그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잘하는 학교를 당근하고 채찍하고 이래서 관내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하려면 어렵고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 꼭 웃음이 넘치는 학급, 웃음이 넘치는 학교교육, 그래서 행복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하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만 통제하지 않고 놔두면 하루에 350번 정도를 웃는대요. 가만히만 놔두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한다는 그런 구실을 삼아가지고 조용히 해, 떠들지마, 왜 웃어, 자기네가 통제를 해서 오히려 행복을 뺏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학교 단위로 많이 좀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또 교육장님들이 볼 때 그런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를 칭찬해서 정말 행복한 학교가 학교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는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3다 3무 주장하고 그거 공문 내보내는 것보다 더 효과 있지 않겠나. 아주 작은 얘기고 의미가 없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기본학습 부진학생 제로화 운동, 이것도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게 뭐냐면 '찬찬한 바른 이 3R's 완전 정복' 그랬는데 이것은 학년과 관계없이 도교육청에서 나간 거 받아쓰기 몇 십 장, 또 가감 몇 줄, 그것을 가지고 무학년제로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찬찬한 바른 이가 됐다고 그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찬찬한 바른 이란 그 자체도 거부감이 있어요. 그것은 교육시책이라고 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되 제 생각은 기초 기본학습이 학년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정한 기초 기본학습을 충족시키는 걸로 그렇게 자율성을 줘야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틀림없이 그 책 전부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다고, 구제했다고 그럴텐데 이거는 좀 우리가 학교 자율성, 담임 자율성, 교육의 자율성이 조금은 너무 통제해서 일률적으로 간다, 이런 것은 조금 탈피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매력적인 게 수업스타와 신규교사의 1 대 1 장학,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교장, 교감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청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를 올린 데가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제가 어느 청인지 적어 놓은 게 확실치 않은데, 또 1일 1교사 장학제도, 이것은 아마 가만히 읽어보니까 교장이나 교감이 당해 학교 교사들 하루에 한 명씩 어떤 영역이 됐든 장학지도를 하는 건가봐요. 이것도 권장하고 확산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교육장님들 철학이 있는 정말로 이거는 비전을 제시한 교육계획인데 비전 제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교장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그 교장선생님들이 요거를 하나하나 이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서 응용하고 더 구체화하고 해서 각론은 학교 단위로 다시 정해서 실천한 결과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사례별로 점검을 하신 다음에 당근과 채찍으로 봉직하신 지역 교육청의 교육발전에 보람을 느끼시게 됐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영용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6분 회의계속)

● 의장 성영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성 위원

교육위원 박노성입니다.

우선 다섯 분 교육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단양 김종근 교육장님 유임 축하드립니다.

취임 초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단양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은 현 교육장님께서 세워놓으신 거고 나머지는 전임 교육장님이 세어놓으신 업무계획을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현재 다섯 분들의 교육장님들의 철학이 이 주요업무계획에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느라고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만 시간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 소견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부터 '97년까지 충북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참고가 되시면은 참고를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장학지도를 장학사님들하고 과장님들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중에서 그야말로 장학지도 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잘하신 선생님들에게는 꼭 현장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혹은 지도 강화,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기회에 표창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한 학교에 한두 선생님들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서로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업을 전개한 그 선생님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아, 나도 표창을 받기 위해서 연구수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남용,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김부웅 위원님 지적을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급적입면 우리 용어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단양교육청에서는 뒤에다가 설명을 잘해 놓으셨는데 뒤에다 하는 것보다도 꼭 외국어를 외래어를 도입을 하시려면 맨 밑에나 그 밑에 각주를 달아가지고서 설명을 해 주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 도교육청에서 온

거 그대로 받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되지도 않을 거 전부 세워서 시간이나 경비절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도 교육청 것을 받다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교직단체와의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교직단체와 교육감,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 특색사업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특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장님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장님 앞으로 또 못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40년 교육철학이 나는 뭐다,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장님의 철학이 담긴 그 특화사업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 교육청과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다른 데도 하는 거, 학력신장방안,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다른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거, 나만의 우리 교육청만의 그런 어떤 특화사업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은 많은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단독으로 하고 학교에 어떤 파급효과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특화사업으로서의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의 철학이 담긴 것이니까 예산 투입도 최소한도 5,000만원 이상 해 주셔야 됩니다. 단양교육청에서는 10억 이상 투입을 하고, 괴산·증평교육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교육장님의 철학이 담긴 특화사업이라면 예산에 많은 부분도 특화사업 구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면 25학교면 7,500만원 세워서 학교하고 교육청이 특화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화사업은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도 좋은데 사실은 두 가지 추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년말에 계량화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특화사업을 2007년도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우리가 목표를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잡았는데 120% 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계량화할 수 있는 특화사업 내용이라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섯 분 교육장님,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성영용

박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만 교육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정보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또 없는 데는 리모델링 공사도 계속해서 학교 도서실을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게는 2,000만원에서부터 많이는 4,000만원 소요되다보니까 관내 모든 학교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일시에 되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완성되는 쪽으로 애써주시고, 기왕에 만들어진 학교 도서실은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비중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술교육 지도는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꾸준히 독서를 하고, 또 독후감을 계속 쓰고, 일기를 쓰고, 토론을 하고 그러는 속에서 몸에 베어야 논술이 잘 되는 것입니다. 기왕 만들어진 도서실이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조직적이고 또 지도적인 논술교육을 받아서 어떤 시험에 가서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리있게 잘 전개할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름다운 학교가꾸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4월이면 식목 철이고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개 학교에 가보면 나무를 쓸데없이 자꾸 옮기기를 합니다. 이 교장선생님들이 부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나무를 옮기는 것 같은데, 물론 불필요하거나 걸리적거리는 나무는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괜히 나무를 옮겨 심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에는 천몇백만원이나 들여서 나무를 큰 거를 두

개를 옮겼는데 1년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거 옮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뭐하러 옮기느냐고. 그 옆에 새로 심으면 될 것을. 그렇게 조금 무모한 것을 하는 것을 좀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지금 아름다운 학교가꾸기 운동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이나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자꾸 동문회에 부탁을 해서 비싼 나무를 자꾸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어느 학교에 가니까 교장선생님 대단히 자랑하는 것을 보니까 소나무 별로 크지도 않은 걸 350만원 줬어요 뭐 이래서 쫙 심어놨어요.

제 생각에는 그 묘목도 좀 작은 것을 사다가 키워서 가꿔서 하는 게 보람 있는 거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나무가 죽을까봐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소나무 죽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비싼 나무를 사가지고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어린 묘목을 사서 좀 가꾸고, 그래서 학교가 전체적으로 숲으로 둘러 쌓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쓰지 않는 약간 버려진 땅이라고 할까요, 그런 학교부지면서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풀이 나고 보기도 흉한데 그런 데를 좀 나무를 좀 묘목을 많이 심었으면 하고, 또 어떤 학교는 부지가 너무 커서 농사를 지을래도 잘 안 짓습니다. 기능직이 힘들어서 작물은 안 심고. 그런 데 묘목을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며칠전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충북이 숲가꾸기, 도시공원이나 나무의 심겨진 비중이 전국의 최하위랍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만이라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교차가 제일 심하고 여름에 더위가 심한 데가 대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구시장님이 3년인가 아주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 결과 작년, 재작년 이태 동안 전국에서 제일 여름온도 높아진 데가 대구, 그게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숲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여름에 그늘에 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면 나무를 많이 심어서 학교의 온도도 좀 낮추고,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푸른숲을 가꾸는 데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런 거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사업에 조금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여섯 분 중 다섯 분의 얼굴이 바뀌셨는데요, 지금까지 한 열흘 정도 짧은 기간이면서도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셨고, 또 요령 있게 잘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사전에 저에게 주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난 것이 몇 가지 있고, 또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는 제가 한 20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채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 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교육청별로 한두 가지씩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충주교육청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애향 자긍심 고취,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향토탐사대 조직 운영, 문화탐사활동, 역사문화체험학습,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각 교육청마다요 지역의 인재를 키운다고 그래서 많은 장학금을 끌어다가 투자해서 사람을 키워 놓습니다.

그런데 지식교육은 제대로 해서 대학은 좋은 데로 넣었는지 모르지만 고향 사람은 못 키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성공하고 나면 고향을 안 쳐다봐요. 내가 똑똑해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학사업을 할 때에도 반드시 애향교육이 들어가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공이 되더라도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1쪽을 좀 봐주시죠.

유아교육이 거기 여러 가지 죽 나왔는데 충주에는 유치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독립된 유치원이.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유치원은 하나예요.

● 김부웅 위원

하나죠, 남산유치원 하납니다.

그 유치원에 기능직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안돼 있고요, 남산초등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서로 겸직 발령을 내놓으니까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리고 유치원에는 분명히 남자가 없어서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저도 교육청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유치원 발표 때 가가지고 남산유치원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들어가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정식적으로 예전에 유치원 원장, 교장회의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규정이나 관련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서 배치하는 걸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장님이 결정하시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제가 교육청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은 거의 다 공통된 질문입니다. 다른 데에 중복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금년도 예산 짜실 때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유치원에 그 재량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이 계십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유치원 장학사도 특별히 그것을 저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유치원을 좀 고려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하라는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가능한 유치원에도 재량사업비를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예

● 김부웅 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 미래대비 교육에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이라고 나왔는데 내용을 죽 읽어보면 영어교육 강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영어 하면 다 국제인이 되는 거지만, 충주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 여러 나라, 또 남미 여러 나라,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외국어교육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있습니다.

제가 중앙초등학교 있을 때도요, 자모학부모 대표 중에서 일본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과후 교육활동에 중국어반하고 일본어반을 개설을 해서 그 자모님을 활용하고.....

● 김부웅 위원

그 좋은 거 하고 있으면 나타났으면 좋을 뻔했네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이 계획서 수립할 때는 제가 없어서. 꼭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꼭 좀 나타내서 충주에서는 다국어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을 봐주세요.

충북효도학생 대상 추천이 있는데, 제가 전체 11개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음성은 음성효도학생, 또 뭐 청원효도학생, 청주효도학생, 이렇게 지역에 맞는 말로다가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는 충북효도학생 추천만 하는군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추천만 할 게 아니라 충주 나름대로의 효도상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효도상을 줄 때에도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전에는 병들고 못살고 지질이 가난해야 이게 대상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좀 다르죠. 아버지가 병이 나면은 얼른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낫게 하는 것이 그게 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효도 대상을 뽑을 때에는 그 중산층 이상 아이들도 정말 부모한테 잘 하는 아이들은 상을 받아야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쪽, 충주인을 위한 여러 가지 애향심 시책이 나와 있는데, 91쪽 가운데 보면은 고구려 기상 되살리기,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주몽이 나오고, 연개소문이 나오고, 대조영이 나오고, 전부 고구려가 지금 초점이 돼서 사극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중국의 동북공정 그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에서 기획시리즈로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구려 기상 살리기는 아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돼서 칭찬드립니다.

충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교육청은 그 업무마다 전부 업무담당자를 명기해 놓으셨더군 그래요. 그래서 그 담당자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방안이라가 생각이 됐습니다.

칭찬드리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소규모 유치원에 교육활동 공동 운영이라고 해서 체험학습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참 좋은 시책입니다. 아이들 한 10명 정도 되는 애들을 데리고 체험활동 가봐야 차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학교, 세 학교를 묶어서 간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관리하는 데도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경비도 아마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참 좋은 시책으로 생각돼서 이게 다른 교육청에도 확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마치겠습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다음 진천 교육장님.

진천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에요, 진천도 자원이 많이 있어요,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들이 4,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57쪽을 봐주세요.

이게 다른 교육청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감사실시 거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현지조치제 활성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문백초등학교 사건,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결국은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일련의 사건이요 이 현지조치제라는 이 간단한 것을 활용을 안한 겁니다. 자세히 알고 들어가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서 주의 같은 거 주고 있어, 기분 나쁘다, 이런 자존심에서 조금 일을 대들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감정싸움이 돼서 그예 말썽을 일으킨 건데, 현지조치제 이거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좋아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예, 고맙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니까 감사 내보내서 적발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감사가 나오면은 수감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은 잘못하면 그거 다 알아들어요, 고쳐집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엄한 벌을 주니까 반발한다는 얘깁니다. 그것도 다른 교육청에도 현지조치제 많이 활용해 달라는 얘기 드리면서요, 71쪽을 봐주세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혁신 얘기가 아주 고약한 얘기가 많아요. 정말 혁신 어떤 걸 혁신해야 되느냐, 이런 용어를 만드는 사람 혁신부터 해야겠어요. 우리 최 교육장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Action Learning이 뭡니까? 거기 70쪽에. 학습과 토론의 날 Action Learning.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이라 생각합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 것들이죠.

I&U Call, 유비커터스 콜, 맞습니까?

그 다음에 S-PPM(Sungle Parts Per Million) 하여튼 이런 용어들이 쓰여 있는데 혁신하시는 분들 용어 먼저 혁신해

야겠어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죄송합니다.

저도 하도 어려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기만 하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보고 또 보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시죠?

우리 고칩시다. 이거 교육청에서도 고쳐야 됩니다. 왜, 만든 사람도 모르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이거.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짚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괴산·증평교육청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은 제가 조금 많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가 나와도 용서해 주십시오.

6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교원복지 저리대여 적극 추진, 85건, 17억 1,170만 원, 무지하게 많이 대여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많은 실적을 내신 게 사실입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사실이라면은 다른 교육청도 우리 어려운 교직원들 돕는 일에 괴산·증평교육청처럼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봐주세요.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과 국제교류 해서 비교 교육연수단 20명, 교사교류 6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체 교육예산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참 좋겠습니다.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도교육청 사업을 그대로 이첩한 것 같습니다.

● 김부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3쪽, 충북학생효도대상 시상, 섬김상, 사랑상, 효행상, 그러면 괴산·증평교육청에서 충북 학생 것을 시상해 버리면 도교육청에서는 할 게 없네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41쪽을 봐주세요.

야영장별 특색 있는 야영활동 전개, 학생종합수련원 3,000명, 종합수련 밑에 해양수련 9,000명, 괴산에 학생수가 7,336명인데 1만 2,000명이 계획이 돼 있어요.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46쪽에 교직단체와의 파트너십에서 충북교총과 정기 교섭 협의,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교직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가능한 겁니까?

나중에 이것을 보고서요 노조나 교총에서 우리 교섭합시다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럼 우리 교섭 관계없습니다 할 때, 아, 여기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52쪽 좀 보세요, 52쪽 위에서 넷째 줄.

현직 교감의 교육전문직 발탁 전형 확대, 이게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교육감이 하실 수 있는 일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제가 반 정도는 빼내버리고 한 건데요 괴산·증평교육청은 좀 심했습니다. 적어도 교육위원회 제출하는 서류치고서 이렇게 불성실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거 재구성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지금 지적해 준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서 제가 교육청에 돌아가는 대로 바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해서 재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부웅 위원

과장님하고 교육장님 다 전직이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하는 이런 서류인데 이런 정도는 갖추는 게 기본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음성으로 가겠습니다.

음성교육청은 참 우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 시책이 전부 지역교육청 사정에 맞도록 재구성돼서 잘 됐기 때문에 제가 꼽을 게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행복한 보금자리 유아교육인데 거기 보면은 맨 밑에 공·사립 지원격차 해소를 위한 사립유치원 지원 하고 나옵니다.

지금 정부에서요 어떻게 정책이 잘못됐는지 사립유치원에는 애들은 15만 8,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극빈자들, 3세아, 4세아.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5만 3,000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립유치원 원아모집이 굉장히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돼 있는데, 또 사립에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공립유치원 다 문닫을 형편이 될텐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음성 교육장 박인수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로 1년에 10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 김부웅 위원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나눠주는 거.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예

● 김부웅 위원

21쪽을 봐주시면은 제2의 반기문 유엔 총장 육성을 위한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 참 반기문을 배출한 고장답게 좋은 시책을 가지고 계셔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양교육청으로 가겠습니다.

단양교육청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복합돼 있어서 고맙고, 칭찬 하나만 드릴게요.

맨 뒤에 70쪽. 71쪽 약어해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순서대로 11개를 다 보면서 속이 굉장히 상했는데, 야, 외국어도 참 많이들 안다 그랬는데 여기서 다 풀어졌어요. 단양교육청에서 이거를 했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발적으로 어수선하게 질문도 했고, 또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 시달이 되면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야 됩니다. 용어, 대상, 또는 시간, 또는 사업내용 등이 그대로 이기되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외래어, 외국어, 또 영문약자 사용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기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상부로부터 오는 용어라고 하더라도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세 번째, 몇몇 교육청은 잘 되고 있는데 애향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점 안타깝습니다.

애향교육이 바로 애국심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사업으로 고장의 인재를 키운다고 애써서 키워놓고서 고향을 외면하는 사람 키워서 뭐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교육이 정말 다양해져야겠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다국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체를 놓고 봐도 통일 대비 교육이 너무 소홀합니다.

그냥 도에서 나누어준 거 그거 몇 가지 쓰다가 말았는데, 우리 6.25를 전후로 한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거는 알

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 우월성이 다 입증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교육이 돼야 되겠고, 지금 핵문제, 남북한 여러 가지 문제, 그냥 환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실태를 완전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 대비 교육 좀 힘써 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교육지원 대상이 극빈자나 아주 못 사는 애들만 전부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선 담임할 때 생각해 보면 그 극빈자라고 선정된 아이하고 선정되지 않은 아이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극빈자라고 된 아이는 그냥 여러 가지 시책이 다 되고, 그거 아닌 아이는 이렇게 구경만 하고, 이런 것도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 이상 아이들도 잘 하는 아이는 지원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잘된 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충주교육청의 애향심 교육 참 잘돼 있습니다.

제천교육청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거 그럴 듯 합니다.

또 영동교육청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퇴직교원을 상대로 해서 연수도 하고 그 분들의 교육기술을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좋은 시책이었고요, 또 군수 후보자를 초청해서 교육시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은 시책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천교육청의 주요행사 추진 계획이 제시된 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교육청은 지역 교육청 나름대로의 추진계획으로 재구성해서 노력한 점이 좋았습니다.

단양교육청, 외래어 해설한 거 좋았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시책을 추진하고 그래서 충북교육이 발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유치원에 들려서 유치원의 교육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화사업 관계에 지속사업 하시는 것과 종료사업이 있는데 종료사업

을 한 경우에는 목표 대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종료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지속사업의 경우 중간평가를 하셨는지, 했으면 그 중간평가의 개선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A4 용지 2장 내지 3장에 요약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충주교육청은 교장선생님들한테 1년 사업계획서를 받으시나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예, 14일까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 **의장 성영용**

각 교장선생님한테.

●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예

● **의장 성영용**

제천은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호**

아직 못했습니다.

● **의장 성영용**

진천은요?

●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아직 못했습니다.

● **의장 성영용**

괴산·증평은.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아직 못했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음성은요?

●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아직 못했습니다.

● **의장 성영용**

단양은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아직 못했고, 제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성영용**

다 계획들은 갖고 계시는데, 사실 단위학교의 발전이나 이것은 학교장의 뚜렷한 의지에 의해서 학교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의 뚜렷한 교육철학과 교육계획을 같이 함유해서 재구성해서 학교별로 1년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1년 동안 학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부탁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 수립이 잘 됐다 하더라도

교육장님들의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기대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보여주신 교육장님들의 의욕적인 실천 의지로 올 한해 업무를 추진하시어 훌륭한 교육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청 외 5개 지역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종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박노성.

○ 출석공무원 : 11명

청주교육청 교육장 안성배, 충주교육청 교육장 손병기,
제천교육청 교육장 김영호, 청원교육청 교육장 김시영,
보은교육청 교육장 박진규, 옥천교육청 교육장 박진하,
영동교육청 교육장 정구석, 진천교육청 교육장 최철환,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김세영, 음성교육청 교육장 박인수,
단양교육청 교육장 김종근.

第20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Ⅰ.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49

Ⅱ.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53

Ⅲ.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63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3월 12일 (월요일) 11시 26분

議事日程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6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성 위원**

박노성 교육위원입니다.

서수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뒤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수웅**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의사결정을 끝까지 원활하게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간사선출의건

(11시 29분)

● **위원장 서수웅**

이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곽정수 위원입니다.

이상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박노성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수웅**

지금 추천해주신 대로 본 소위원회 간사로 이상일 위원님이 추천되어서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간사로 선출된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소위원회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0분)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14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요일인 3월 14일 11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서수웅, 간사 이상일,

위 원 곽정수,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3월 14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202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서수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수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는 2006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휴가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수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이 신설이 되고,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 또 헌혈 참여시 공가인정,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출산휴가 중, 또 휴가 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또 공무원 입양휴가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걸 들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날 개정됐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맞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렇다면 2006년 11월이면 벌써 한 3,4개월 훨씬 지났는데 그 동안에 교육위원회 2월 달, 1월 달 회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빨리 교육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으면 그 동안이라도 이런 사안에 해당이 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모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용을 다 받고는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시기가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신건환

그렇습니다.

● 간사 이상일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는 혹시 이렇게 좀더 빨리 이런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서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면 좀더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앞으로 저희들이 신속한 행정을 해서 상위법과 연계되는 하위법이 바로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앞으로 질의·답변하신 내용을 유념하셔서 시기 적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일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에 있고 이제 하위 조례나 규칙에 의례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상위법에서 일부를 하위규정에 위임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집행청에서 혹시 방기하거나 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누릴 혜택이나 복지부분이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무규정에 그렇게 위임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혹시 방치하고 방기하고 있는 부분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임된 것에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계된 건 열심히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늦어지는 사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포괄적 위임이 됐을 때 각 시·도나 지방의 일반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균형성 차원에서 검토단계가 필요한 것은 조금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나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가능한 혜택을 받도록 조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부웅 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가 됐는데 내용이 늦게 상정이 됐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회의에 원안 통과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수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김부웅 위원님 발언에 따라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공포로 학교주소 및 명칭변경과 학교이전, 지번 변경에 따른 학교주소 변경을 위하여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변경에 따라 금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금능초등학교를 충주금릉초등학교로 명칭과 주소를 법정 동명과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청원군 오창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병설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학교주소를 청원군 오창면에서 청원군 오창읍으로 주소를 변경하며,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산업단지로의 학교이전에 따른 만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만수초등학교 주소를 변경하고, 괴산군 및 증평군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병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의 학교주소를 변경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수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성 위원**

지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 주셨는데 주소나 명칭변경 그 다음에 지번 변경, 학교이전, 행정구역 변경 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요것도 3월 이전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 충주금릉초등학교는 지금 쓰고 있죠? 명칭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지금 바뀐 걸로 쓰고 있습니다.

● **박노성 위원**

바뀐 걸로 쓰고 있죠.

조례안은 아직 의결이 안됐고?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립학교 설치조례 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도의회 계류 중에 충주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포함 못했습니다.

● **박노성 위원**

어차피 여기는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원안통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수웅**

박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이상일**

위원장님 저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간사 이상일**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대로 이거는 읍·면·동·리의 명칭변경과 구역에 관해 변경조례이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지번 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이 있는데 증평에 증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3개 유치원, 초등학교가 증평초등학교, 삼보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3개교, 또 중학교가 증평중학교, 감물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등학교가 빠진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변경이 안돼도 되는 건지?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위원님 옳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례안을 작성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만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도 관심이 소홀했고 또 도에서도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걸 그냥 100% 믿다 보니까 도에서도 확인절차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래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이 어째 없느냐 어제 검토한 결과 증평공고 지번이 바뀐 걸 한 가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알겠습니다.

암만 봐도 증평공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위원장님 저기.....

● **위원장 서수웅**

그러면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정식으로 발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그러면 수정동의 처리를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서수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이상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금번에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증평군 지역의 학교를 확인한 결과 증평공업고등학교가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713번지로 변경되었으나, 동 조례에는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620번지로 되어 있어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별표1의 증평공업고등학교 위치란 중 620번지를 713번지로 변경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의 증평공업고등학교 위치란 중 620번지를 713번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서수웅, 간사 이상일,

위 원 곽정수,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7. 3. .

위 원 장 서 수 웅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0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7. 3.12.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7. 3.14. (수)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